**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생명과학과 하민기**

**Cinema 14~**

 인간의 과학 발달 기술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유전자 지도가 확보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유전자 조작 및 질병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삶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될 것임을 암시한다. 질병 걱정이 없고 오래 살며 Wellbeing을 누릴 수 있도록 유전자 기술은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는 반면 과학 기술이 점차 발달됨에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정 질병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정 직업이나 일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고 유전자 조작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계층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며 이는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생명 연장의 꿈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식량,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전 공학 기술은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 위배되면서까지 삶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유전자 조작의 산물이 인간의 통제에 벗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슈퍼박테리아와 GMO 등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성체가 아닌 태아의 줄기 세포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기술을 발전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또한 존재한다. 인간의 대체 장기나 조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따로 생각해내어 인간의 정신을 담을 새로운 그릇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제 인간의 경우 그 인권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에이즈 면역의 아이를 탄생하게 하여 큰 논란이 되었으며 이 과학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유전자라는 연구 분야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은 맞으나 그 부작용에 대한 통제와 발전 속도 조절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